

韓 5G 주도... 유럽 사로잡은 폴더블·듀얼 스크린폰

IFA 2019

삼성전자 5G 스마트폰 3종 전시
LG전자 개선된 듀얼 스크린 공개

유럽 최대 가전전시회 'IFA 2019'에서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자사의 신제품을 전시하며 한국의 5G 스마트폰 리더십을 선보였다. 가전제품 전시회임에도 IFA에서는 올해 글로벌 상용화를 시작한 '5G'가 핵심 키워드로 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전시장을 찾은 관람객의 눈길을 끌었다.

삼성전자는 주요 생활가전 제품 외에도 '갤럭시 폴드 5G', '갤럭시 노트10+ 5G', '갤럭시 A90 5G' 등 5G를 지원하는 스마트폰 3종을 전시했다. 특히 세계 최초 폴더블 스마트폰인 갤럭시 폴드에 관람객의 관심이 쏟아졌다.

소형 유리판과 이를 둘러싼 데크에 갤럭시 폴드 수십대가 전시됐고, 관람객은 체험용으로 전시된 갤럭시 폴드 8대를 통해 제품을 만져봤다. 공식 개막



관람객들이 6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가전전시회 'IFA 2019' 내 삼성전자 전시장에서 '갤럭시 폴드 5G'를 체험하고 있다.

전날부터 전시회 기간 내내 갤럭시 폴드를 직접 보고 체험하려는 관람객이 줄을 길게 늘어섰다. 갤럭시 폴드는 6일 한국에서 가장 먼저 출시됐으며 영국, 프랑스, 독일, 싱가포르, 미국 등에서 4G LTE 또는 5G 버전으로 순차적으로 출시된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A' 시리즈 최초의 5G 스마트폰 갤럭시 A90 5G도 선보였다. 갤럭시 A90 5G는 6.7형 슈퍼 AMOLED 인피니티-U 디스플레이, 4800

만 화소 트리플 카메라 등 최신의 기술을 탑재했다. 갤럭시 A90 5G는 4일 한국 출시를 시작으로 글로벌 시장으로 판매를 확대할 계획이다.

LG전자는 하반기 전략 스마트폰 'V50S 씽큐'와 함께 개선된 듀얼 스크린을 공개했다. 해외 출시 모델명은 'LG G8X 씽큐'로 4G 전용으로 출시된다. 새 듀얼 스크린은 닫힌 상태에서도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전면 알림창'이 적용됐고, 화면 각도를 자유롭게 고정



관람객들이 LG전자의 하반기 전략 스마트폰 LG V50S 씽큐(해외명 LG G8X 씽큐)와 새로운 듀얼스크린을 살펴보고 있다. /LG전자

할 수 있는 '프리스톱 힌지'로 기존보다 사용 편의성이 강화됐다.

LG전자는 신제품을 내달 국내를 시작으로 연내 북미 등 글로벌 시장에 순차 출시할 계획이다. 특히 LG 듀얼 스크린은 세계 최대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인 북미에 처음으로 출시되는 만큼, 기대가 집중된다. 전작인 LG V50 ThinQ는 LG 듀얼 스크린 없이 북미 시장에 출시된 바 있다.

국내 업체 외에는 중국 업체의 선전

이 두드러졌다. 화웨이는 자사의 첫 5G 스마트폰 '메이트20X 5G'를 전시했다. 폴더블폰은 전시하지 않았다. 대신 5G 통합칩(SoC) '기린 990 5G'를 공개하며 기술력을 뽐냈다. 이 칩셋은 퀄컴과 삼성전자도 개발하지 못한 상태로, 화웨이가 세계 최초로 내놓아 5G 통합칩을 상용화한다는 데 의미가 크다. 이 칩셋은 오는 19일 독일 뮌헨에서 공개되는 '메이트 30' 시리즈에 탑재될 예정이다.

샤오미는 지난 2월 MWC에서 첫 공개했던 5G 스마트폰 미 믹스3 5G를 전시했다.

모토로라는 신제품 모토Z4와 탈부착형 5G 통신모듈을 내놨다. 모토로라는 신제품 '모토Z4'와 탈부착형 5G 통신모듈을 내놨다.

내년 5G 상용화가 이뤄지는 일본의 업체 소니, 샤프 등은 4G 스마트폰을 전시하거나 5G 스마트폰 모형을 전시하는데 그쳤다. 샤프가 5G 스마트폰을 모형 형태로 전시했으며 내년 상반기 출시 예정이다.

/쿠서윤 기자 yuni2514@metroseoul.co.kr

“사모펀드, 국가경제 마중물 될 수 있어”

>> 1면 '중장기 투자...'서 계속

◆ 사모펀드, 영업맨의 꿈

사모펀드는 개인뿐만 아니라 운용사 입장에서 선호하는 투자 방식이다. 투자 결과에 대한 클레임도 적고, 운용에 대한 제약도 거의 없기 때문이다.

사모펀드가 소위 '대박'이 나면 운용사도 큰 돈을 거머쥌 수 있다. 통상 사모펀드를 운용하는 운용사는 관리보수로 1~2%를 받고, 예상수익률 초과 시 초과이익의 20~30% 수준의 성공보수를 받는다. 예를 들어 100억원을 운용해 예상수익률(5%)을 초과한 10% 수익을 냈다면 성공보수만 1억5000만원 정도를 챙길 수 있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증권사 영업점에 일하는 직원이나 공모펀드 매니저 중에는 운용사를 설립해 사모펀드를 운용해보고 싶다는 욕심을 내지 않는 직원은 없을 것”이라면서 “같은 2% 운용보수라도 공모펀드는 판매사의 몫이 80% 수준이고, 사모펀드 운용역은 거

의 대부분이 본인의 몫으로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의 감시도 받지 않기 때문에 자유로운 투자도 가능하다. 사모펀드는 전문가 간 거래고, 투자자와 운용사 간 긴밀한 논의가 가능하다고 판단, 투자 방식이나 결과에 관여하지 않는 게 원칙이다

한편 정부는 사모펀드가 국가경제 마중물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각종 규제를 완화해 사모펀드 시장을 키우려고 하고 있다. 49인 이하로 정해진 투자자 수를 100인 이하로 확대하고, 전문투자자 영역을 확대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사모펀드는 긴 호흡의 투자가 가능하고, 고위험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혁신기업에 성장자본을 공급하고, 기업구조조정에 참여할 수 있다”면서 “사모펀드 활성화는 혁신성과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재산 증식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영지 기자 sonumji301@

추석 네트워크 대란 없다... 이통사 특별 관리

SKT 5500명 투입 품질관리
KT 전국 총 1000곳 집중감시
LGU+ 24시간 비상운영체제

이동통신사들이 추석 귀성·귀경길 트래픽 폭증 등을 대비해 특별 관리 체제에 돌입했다. 특히 늘어나는 5세대(5G) 이동통신 가입자를 위해 빅데이터 분석 및 추석 소통 대책을 마련한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연휴기간 중 안정적인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네트워크 관리에 돌입한다고 9일 밝혔다.

SK텔레콤은 추석 당일인 13일, 전국 데이터 사용량이 평일 동시 대비 약 15% 증가해 시간당 최대 610TB(테라바이트)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한 추석 연휴 직전인 11일 저녁에는 명절 안부 인사 및 귀향객 미디어 시청이 대폭 늘어 고객들의 음성 및 데이터 접속 시도가 최대로 몰릴 것으로 예상했다.



경기 성남시서울 톨게이트 인근 건물 옥상에서 SK텔레콤 직원들이 기지국 점검을 하고 있다. /SK텔레콤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오는 11일부터 15일까지 '특별소통대책'을 실시하고, 연인원 총 5500여명의 SK텔레콤 및 ICT패밀리사 전문인력을 투입해 서비스 품질 집중관리에 돌입한다.

KT는 주요 이동경로를 고려해 경부·호남·서해안·영동 고속도로와 서울 만남의 광장, 문막 휴게소 등 82개 휴게소, 귀성·귀경 인파가 몰리는 서울역, 수서역, 목포역, 부산역 등 23개 KTX·SRT 역사에도 5G 개통을 완료했다.

아울러 KT는 연휴 기간 중 정체가 예상되는 전국 고속도로와 국도 350여 곳, 연휴기간 동안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터미널, KTX와 SRT 역사, 공항, 백화점과 같은 쇼핑몰 등 650여 곳을 포함한 전국 총 1000여 곳을 특별 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집중 감시에 돌입한다.

LG유플러스는 현장요원 증원, 마곡사옥 종합상황실 개소 등을 통해 연휴 기간 고객에게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24시간 비상운영체제를 가동한다. 특히 LTE의 경우 지난해 트래픽 추이를 분석해 데이터 급증 지역을 중심으로 통화채널카드를 증설하고 소형 기지국(RRH)을 추가로 설치했다.

또 전국의 산간 지역을 비롯해 국립공원, 레저타운, 놀이동산, 유원지, 골프장 등의 네트워크 추이를 분석, 품질 테스트를 실시하고, 통화량 및 데이터 소통 대비를 위한 비상운영체제를 가동한다.

/김나인 기자 silkni@

SK에너지, 3000억 규모 그린본드 발행

SK에너지가 친환경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3000억원원 규모 그린본드 발행에 나선다.

그린본드는 친환경 사업에 투자할 자금을 마련하는 목적으로만 발행할 수 있는 채권이다. 이를테면 신재생 에너지 개발, 공해 방지 사업 등 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제조업 중 국내에서 그린본드를 발행하는 것은 SK에너지가 처음이다.

SK에너지는 이달 18일 그린본드를 발행하기 위해 수요예측을 실시한다. 구체적인 발행 조건은 수요예측 이후 결정한다. 발행규모는 3000억원으로서



지난 3월 SK에너지 울산CLX 내 감압 전사유 탈황설비 공사 현장.

작해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최대 5000억원까지 증액을 고려하고 있다. 그린본드 발행일은 이달 26일이다.

/양성운 기자 ysw@

전경련 “美·中 패권전쟁 대비... 정부 지원·첨단기술 확보 중요”

미중 패권전쟁과 대응전략 세미나

“경과 따라 한국 성장률 0.5~0.6% ↓”

대한민국이 미중 패권전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 지원과 첨단 기술 확보가 중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9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미중 패권전쟁과 대응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전경련 권태진 부회장은 개회사에서 “G2의 힘겨루기가 기술전쟁·환율전쟁으로 확산되며 우리 경제는 1997년 IM

F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더 가혹하다”고 진단하며 “미중 무역협상의 교착원인과 향후 전망,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진단하는 오늘의 자리가 우리 정부와 기업에 솔루션을 제공해주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KIEP 서진교 선임연구위원은 “미중 무역협상 교착 원인과 향후 전망” 발표로 미중 협상결렬 원인을 상호 신뢰와 이해부족으로 보고, 미국 내부 정치 상황상 협상을 2020년 미국 대선까지 끌고갈 수 있다고 내다봤다.

현대경제연구원 주원 경제연구실장은

“미중 패권전쟁의 한국경제 영향”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우리 기업의 피해를 우려하며, 향후 경과에 따라 한국 성장률도 0.5~0.6% 떨어질 것으로 우려했다.

이에 대해 패널 토론 진행을 맡은 박태호 전동상교섭본부장은 “장기화되는 미중 통상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 기업들은 수출시장, 수출품목, 해외 조립생산기지 등을 다변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우리 중소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나아가길 수 있도록 정부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정리했다.

/김재운 기자 juk@